

# “말 못하는 다문화가정 아동 치료해요”

## 전북대병원, 언어장애 알고도 치료못받는 아동 음성언어치료 큰 호응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교정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어린이병원 소아언어치료실에서 이뤄진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교정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중 영유아기, 학동전기, 학동기 아동의 언어적 문제점을 분석한 뒤 언어치료실에서 정기적인 언어교정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워 조기검진을 받지 못하거나 언어장애를 알고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아동들이 정기적인 치료를 통해 언어능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사업대상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다문화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진료 및 음성언어평가 55건 음성언어치료 56건 등 111건의 사업을 수행했으며, 지난해는 진료 및 음성언어평가 49건 음성언어치료 91건 등 총 140건으로 전년보다 26%나 사업이 증가했다.

소아청소년과 김선준 교수는 “폐쇄적인 다문화가정 특성상 언어발달을 겪고 있는 아동의 발견이 늦어 기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학교 생활이나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자신감을 갖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음성언어치료는 아동들이 정기적인 치료를 통해 언어능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다문화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무주농협, 여름휴가철 깨끗한 하나의 마을만들기 운동

농협무주군지부(지부장 정재호)이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과 지난 19일 무주 안성면 진원반디길마을에서 휴가철 맞이해 깨끗한 하나의 마을 만들기 추진을 개최했다.

농협과 진원마을 주민 등 15여명이 진원반디길마을에서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으로 논두렁쓰레기 줍기 잡초제거, 꽃길 가꾸기 등 다양한 도시관광객 맞을 준비로 마을정비 사업을 실시했다.

농협무주군지부 정재호 지부장은 “마을주민과 함께 추진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여름 휴가철 도시민이 다시 오고 싶은 농촌마을로 만들고 농협의 새 농촌운동인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명예이장으로 교류활동 중 하나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농촌 만들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마을 공동체 회복과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 순창경찰서, 112 순찰차 등 이용 이색 교통안전캠페인 눈길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에서는 교통안전캠페인 슬로건 ‘켜자! TWO 라이트, 지키자! TWO 라이트’를 경찰 112 순찰차와 모범운전자 차량을 이용하여 이색홍보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은 군민들의 교통문화의식 수준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TWO 라이트, 지키자! TWO 라이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순창경찰서에서는 자체제작한 ‘켜기 주간 전조등, 방향지시등, 지키기 차량·보행신호등’의 홍보문구가 들어간 아광반사지를 경찰순찰차 및 모범운전자 차량의 뒷 범퍼에 부착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운전자 및 주민 등이 쉽게 볼 수 있어 홍보효과 상승으로 군민들의 교통문화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규운 서장은 “주간전조등과 방향지시등 이 두가지 라이트 켜기만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및 순창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 덕진소방서, 폭염 119구급대 9월말까지 운영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원석)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폭염 119구급대’를 9월말까지 지속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주덕진소방서 전119구급대는 지난 19일 오후 5시 20분께 여의동 폐기물처리업체로 출동 소각로에서 장기간 업무로 고온에 노출된 직원의 체온을 낮추고 전해질 음료를 공급하는 등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덕진소방서는 폭염대비 구급활동 대책으로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구급대원 및 펌블린스대원을 대상으로 전문 응급처치교육 실시 및 119구급차량에 열음조기, 정제수급, 전해질음액 등 확보 등으로 무더위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폭염 대비 덕진소방서 119구급대는 70여명의 구급대원과 10대의 폭염대비 119구급차 및 10종의 폭염 구급장비를 확보하고 있다.

덕진소방서 관계자는 “폭염 때는 한낮 격렬한 운동은 삼가고 야외 근무자는 틈틈이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며 “노약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고 시원한 장소를 찾아 무더위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용주 기자

###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여성안전 문안순찰 호응

남원경찰서(서장 황종택) 중앙지구대(대장 박남규)는 대국민 체감인전도 향상 및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문안순찰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여름철 성범죄 발생 빈도가 높고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주민들을 대상으로 피서지 성추행 및 몰카범 대처요령 등을 설명하고 평소 여성들이 범죄로부터 불안감이 느껴지는 지역과 개선 필요사항 및 특정장소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 등을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관련 전단지도 배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무주군자원봉사센터, 고사리손봉사단 재능잔치 재능기부

예쁨어린이 집 원생 40여명이 20일 무주군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100여명 상대로 재능잔치 재능기부를 실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전북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훈)이 후원하고 무주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진욱)가 지원하여 육성되고 있는 꿈나무들로서 어린이 집에서 익힌 재능을 관내 시설을 방문하여 재능기부를 함으로써 노인분들에게 웃음을 어린이들에게는 봉사심성을 기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하반기 타 어린이집 원생들도 재능을 익혀 관내 요양시설을 두루 돌며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선사 할 수 있는 재능잔치 재능기부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nmaeil.com 2016년 7월 21일 목요일(21)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주)66912 전주신문사 (전주) 22-4층 (사노동동)

부회장 김승곤 전무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입문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65-418	중앙지사 010-9868-66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6-8989
심천지사 010-2333-4798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62-2725
서신지사 22-947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84
호주지사 010-6865-9835	팔복지사 258-6884	남원지사 632-0885	정읍지사 536-9387
	군산지사 446-0757	순창지사 659-0444	장수지사 010-3862-8157
	익산지사 85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30-4258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0원 인쇄인 이상헌 본지는 소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